

활기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4
568-6651~2
등록일: 1988년2월19일 FAX. 568-6653
www.fipa.or.kr

완공위주 집중투자로 호과증대

투명성 제고 위해 공사절차 합리적 개선 어촌·어항 관광자원화 추진

국가어항의 조기완공을 위한 시설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신규어항 지정을 억제하되 완공위주 집중투자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고, 현재 지정·개발 중인 40개 국가어항의 완공기간을 2007년까지 3년 단축, 총 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2002년 이후의 어항건설예산이 연간 약 25%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어항공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공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신규 착수할 인천 대청도 선진포항, 강원 고성군 공현진항, 충남 홍성군 남당항, 경남 마산시 원전항, 전남 장흥군 회진항, 제주 서귀포시 하효항 등 6개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및 감리를 전문 엔지니어링사에 의뢰, 공개경쟁을 통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소규모 항·포구는 어촌종합개발과 연계, 연간 2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5년내에 200개 항·포구에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 시설에 집중 투자하는 등 일체 준비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어항배후부지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 어촌관광 등 다기능항으로 개발키로 하고 현재 추진중인 속초시 대포항 모델을 근간으로 확대 추진하여 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어항을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다. 어촌·어항 관광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 경기·충남을 1단계로 추진하고 이후에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생태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관련 예규를 이 같이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시·도관내에 소재한 지역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지역제한 대상공사를 종전의 관급자재대가 포함된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에서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추정가격 5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한도금액은 종전보다 20% 상향 조

정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들이 연간 3천억원 정도를 추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자치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53억원 미만,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 넷째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 및 권익보호, 다섯째 경영효율화 및 조직경쟁력 강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한국어항협회는 선진어항어촌을 조기에 육성한다는 대명제를 완수하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협회 연구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였습니다. 초창기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 이 사업은 우리나라 어항 발전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기초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수중침적폐기물 정화사업과 침체망 인양사업을 수임, 큰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전국어항개발 투자효과분석 및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임, 올 11월경 성과물 제출을 위해 현재 활발한 조사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엔 중국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한·일·중간의 어항산업과 수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항어촌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우리의 어항어촌을 지키고 발전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의욕과 용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어항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해서 미리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새해엔 지난해의 어려움을 훌훌 털어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에 임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얼마간 세월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대단한 성과가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항인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이 난국에 의연히 대처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61개 어항 시설사업 확대 공사발주 1·4분기내에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지역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인천시 선진포항 등 6개 신규 지정어항을 비롯, 61개 국가어항에 총 1,325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2001년도 어항개발 사업계획에 따르면 어촌지역 경제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어항의 시설기능 제고를 위해 올해 총 1,325억원을 들여 인천 선진포항, 강원 공현진항 등 총 61건의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항개발사업이 기본시설 위주의 한정투자에 그쳐 지역 거점항으로서의 역할이 부진한 점을 감안, 올해부터는 시급

성이 떨어지는 어항의 경우 사업비를 삭감 배정하되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어항위주로 투자를 집중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달 안으로 항별 사업비 배정을 완료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사업비 배분계획 협의가 끝나는대로 조기 완공추진을 위해 공사발주를 1·4분기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특히 인천 선진포, 강원 공현진, 충남 남당, 전남 회진, 경남 원전, 제주 하효 등 6개 신규어항의 경우 상반기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사업비 30억원을 배정했으며 진입로 포장, 안전

시설 설치 등 어항기능 제고를 위한 시설사업에 4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했다.
또 어항 조사사업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해 동해안 어항 해안침식방지 기본설계, 전장포항, 김녕항 환경영향평가 등 3건의 용역사업을 신규 추진키로 했으며 어항별 준설 정비보강사업 33건을 상반기 안으로 착수키로 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는 계속공사로 추진중인 12개 어항에 대한 투자비로 740억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어항의 조기 완공을 위해 어항시설비 지원규모를 작년의 182억원에서 228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으로

강원도 대포항을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포개발공사가 오는 3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최근 속초시에 따르면 대포항을 동해안 제1의 대표적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하는 등 주요 어항기능을 통합 운영할 대포개발공사 출범을 위해 운영조례안과 정관마련, 자본금 출자 등 각종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시가 3억5천만원을 출자해 설립하는 대포개발공사는 해양수산부 227억원, 속초시 337억원 등 총 614억원

의 사업비가 투자돼 2006년까지 완공될 예정인 대포항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포항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대포항 동방파제와 서방파제, 물양장을 확장하고 해수면을 매립, 18만7,473㎡의 터를 조성한 뒤 위관시설과 수산물시장, 전시관 등을 갖춘 관광중심항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올 6월 착공될 예정이다.
속초시는 대포개발공사가 설립 운영되면 민간기업을 통해 정부주도 개발사업보다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며 대포항이 관광어항으로 조성되면 관광레저발전의 토대가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역제인 입찰공시 확대
지역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대상 공사가 확대되고 지역의 무 공동도급비율에 대한 하한선이 제시돼 지방소재 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21세기의 첫 해인 2001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어항인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사업에 내내 건강과 평안, 번영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일찍이 우리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격동의 해였습니다.
한국 역사는 물론 세계 역사상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으로 문을 연 밀레니엄은 온 국민들에게 통일의 열망을 드높여 주면서 그 가능성을 크게 앞당겨 주리라는 기대감에 우리 모두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통일에 관한 범국민적인 높은 성과와는 달리 지난 하반기를 고비로 곤두박질 치는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는 또다시 그 악몽 같은 IMF사태가 닥치지 않을까 조마조마 하는 마음으로 겨우 한해를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해가 바뀌고 21세기를 여는 2001년의 힘찬 출발이 시작되긴 했지만, 지금 우리의 처지는 바로 지난해 그 위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올 한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너무 자주 인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은근과 끈기를 지닌 근성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리 밝혀도 다시 일어서는 풀뿌리 같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합시다. 과거 이보다 더 혹독한 고난도 이겨낸 저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어항협회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풀무에 단련된 쇠가 더욱 단단해 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새로운 각오로 올 한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항협회는 21세기를 여는 2001년의 사업 기본방향을 다음 5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첫째 수산기반정비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둘째 어항기술개발과 조사연구 및 홍보강화, 셋째 어항환경정화사업의 중점적인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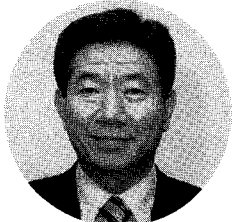
비장한 각오로 전화를 위복 기회를 만들자

첫째 수산기반정비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둘째 어항기술개발과 조사연구 및 홍보강화, 셋째 어항환경정화사업의 중점적인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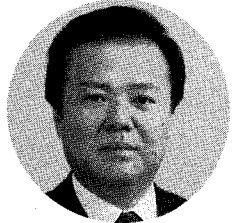
동

정

동아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강연



盧武鉉 해양수산부 장관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1일 국립현충원을 참배, 3일에는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분 관련인사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 8일에는 안전관리실 해운물류국 9일에는 해양정책국 업무보고를 받음, 11일에는 신지식인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 12일에는 대회의실에서 소속기관장 회의를 주재, 17일 새벽에는 노랑진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설 상수품 가격동향 및 수급상황을 점검, 시장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이어 동아대학교 최고경영자 정보경영과정에서 강연.



孫井植 한국어합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1월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밝은사회서울중앙클럽 월례회의에 참석, 9일에는 프레

스센타에서 서울대행정대학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의 회의에 참석, 16일에는 연세동문 신년인사회에 참석, 29일에는 일본 수산청 어항어촌 관계자를 접견.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 1월3일 업무협의차 태국 출장, 12일에는 광주농고 총동창회 신년인사회를 개최.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4일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11일에는 국방회관에서 열린 총우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13일에는 한국정치발전연구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15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신년인사회에 참석, 18일에는 서울대 총동창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20일에는 건교부 청와대 업무보고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3일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9일에는 라이온스클럽 정기이사회에 참석, 10일에는 대한검도회 2000년도 결산이사회에 참석, 이어 대한직접자사 광주전남지사 신년인사회에 참석, 12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 17일에는 사립중고등학교법인 협의회 광주광역시회 이사회에 참석.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1월6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지역을 순방.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16일 오전항 차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주재.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3일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5일에는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12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간사회의를 주재, 16일에는 월드컵경기장 현판식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4일 업무협의차 필리핀 출장.
 ▲송재성 주식회사서성호종합건설 회장은 1월8일 여수공사현장에 출장.

사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양방재담당관실 정보통신서기관 강평현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안호 △수산사무관 양동엽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장성식 △총무과 행정사무관 윤석홍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윤호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송상근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임송화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권오정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서기관 최준욱 △행정사무관 최명범 △행정사무관 이인수

△해양정책국 해양개발과 행정사무관 김해정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 행정사무관 오운열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행정사무관 천재홍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행정사무관 이성진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행정사무관 남광률 △해운물류국 선원노동과 행정사무관 윤종호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개선과 행정사무관 김창균 △행정사무관 허삼영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서재연 △수산정책국 유통기공과 행정사무관 정진혁 △행정사무관 한홍교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수산사무관 정용균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수산사무관 라인철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행정사무관 최익현 △수산사무관 이영직 △전사무관 이현석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수산사무관 최현호 △국립수산물진흥원 행정사무관 조인식 △행정사무관 김상도 △수산사무관 강윤석 △국립해양조사원 행정사무관 박영숙 △전산사무관 이호상 △국립수산물검검소 수산사무관 신연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사무관 조창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사무관 김대수 △행정사무관 송현무 △행정사무관 김성수 △평택출장소장 행정사무관 민성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사무관 손봉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사무관 임태홍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행정사무관 윤정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행정사무관 홍성식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행정사무관 김성갑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장항출장소장 행정사무관

조자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장 행정사무관 문돈식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장 토목사무관 이수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행정사무관 강래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주사 김동욱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서귀포출장소장 행정사무관 박순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서기관 정영호 △서기관 박경철 △서기관 정태균 △서기관 안병욱 △행정사무관 이주형 △행정사무관 홍래형 △수산사무관 최용석 (12월28일)
 □계장급 인사 △안전관리관실 안전계획담당관실 선박서기관 김규섭 △"공업서기관 손영대 △"선박사무관 김해광 △"해사기술담당관실 선박사무관 정성문 △"선박사무관 김동천 △"조선사무관 윤영호 △"해양방재담당관실 선박서기관 김병수 △"항로표지담당관실 수로사무관 진한숙 △국립수산물진흥원 선박사무관 하대식 △"조선사무관 전길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로주사 김민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로사무관 성기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박사무관 류성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 수로사무관 정용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 수로사무관 이희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 수로사무관 김길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박주사 오동현 △해양수산부 근무 선박사무관 홍중해 (1월9일)
 □과장급 인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시설부이사관 이상문 △항민국 항만정책과장 시설서

기관 윤병구 △"항만건설과장 시설부이사관 정만화 △"항만개발과장 시설서기관 강범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장 (직무대리) 시설서기관 홍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시설서기관 나원균 (1월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직무대리) 전기정 (1월12일)
 □사무관급 인사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홍순엽 △항민국 항만정책과 박용남 △"항만개발과 김시준 △"기술안전과 정태욱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김태년, 송종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순형모, 황철민, 이희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홍승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함만공사과장 최재학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조지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진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박창연 △해양수산부 근무 시설서기관 권정기 (1월15일)

외비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주식회사대양 (사장 박봉영)
 ▲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사장 이환범)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중학)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정병남)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이복한)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임동철)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임덕섭)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항만공사 조기발주 추진

해양수산부는 국내건설경기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금년도 주요항만건설사업 총 84건 공사 7,509억원 중 63%에 해당되는 58건 공사 4,741억원을 1·4분기에 조기발주토록 하고, 나머지 26건 2,768억원 공사도 2·4분기내에 발주토록 함으로써 약 9천명의 상시 고용효과를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항만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설계서 등을 작성하고 계약기간도 전년도에 30일 이상 소요되던 것을 15일 미만으로 단축시켜 조기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주

지역을 국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에 제주외항 방파제와 서귀포항 안벽공사를 착수하는 한편, 서남권의 컨테이너 화물증가에 따른 광양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측배후도로 건설 등 총 15건의 항만건설공사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기본계획을 오는 2004년까지 수립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9개 신항만도 녹지시설 위주의 친수공간을

연차 확보해 나가기로 하고 부산신항의 경우 총 1,561억원을 투입, 보트 300대 수용 규모의 마리나 시설과 33만7천㎡ 규모의 공원 및 수변녹

지를 오는 2016년까지 조성키로 했으며 인천북항에는 영종도와 정미지역에 레저·생태공원을 오는 2003년부터 본격 개발키로 했다.

항만친수공간 본격 개발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항만시설에 대해 항만별 특성에 맞는 해양문화공간을 적극 조성키로 하고 8개 일반항과 9개 신항만을 대상으로 해양공원, 레저시설, 해상도시 등 각종 위락·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친수항만 중장기개발계획에 따르면 하역시설 위주의 항만시설을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양 문화공간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기로 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민자 9,284억원을 포함

총 1조2,820억원을 들여 부산 동삼동 해양공원, 인천 북항 생태공원 등 총 25건의 문화·휴식시설을 연차 건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항만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친수성 항만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금년부터 항만별 특성에 맞는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으며 부산신항 등 9개 신항만의 경우 녹지시설 위주로, 일반항은 해양도시 및 해양공간 등 문화·휴식공간 위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별로는 일반항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민자 8,059억원을 포함 1조8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산 동삼동 해양공원, 부산 2중양부두 마리나랜드, 울산 해양공원, 마산 서항 문화단지 등 15건의 시설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중 포항여객터미널, 여수 구항정비사업 등 2건의 건설공사는 올해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군산 내항 친수공간, 군산 해상도시, 마산 서항 문화단지, 제주외항 해양공원 등 4건의 시설사업은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 오는 2004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나머지 시설사업도 2004~2005년 공사착공 목표로

가거도항 방파제 큐버공법 도입

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재 가거도항 방파제 복구공사가 국내 최초로 직육면체 블록인 큐버블럭 공법으로 시행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31일 내습한 초특급 태풍 '프라피룬'으로 가거도항의 64톤짜리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테트라포트)이 산산조각나자 큰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큐버블럭 공법으로 시공키로 했다.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큐버공법은 105톤 무게의 직육면체 블록을 방파제 밖에 설치해 파도를 막는 방법으로 64톤짜리 테트라포트에 비해 파손율이 낮다. 또 방파제 상부는 기존 방파제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대형 셀블럭을 설치한 후 속채움 콘크리트로 연결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초 180억원을 들여 큐버블럭 공법으로 복구공사에 들어가 2002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요구 등으로 협상 종료된 포항영일만신항 민자사업에 대한 시설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를 거쳐 내달초 최종안을 재고시키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계획(안)에서 당초 9개 선석으로 예정된 포항신항 민간투자규모를 컨테이너부두 4개 선석으로 축소 조정해 민간의 사업참여를 확대키로 했으며 사업협상을 통해 15%선의 적정수익률과 50% 이하의 정부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나머지 5개 선석은 추후 민간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국고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최

포항신항 4개 선석 우선 시행

해양수산부는 사업비 부담으로 협상종료된 포항영일만신항 민자사업을 2단계로 구분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키로 하고 컨테이너부두, 잡화부두 등 총 9개 선석 중 컨테이너 4개 선석을 1차 사업으로 우선 시행키로 했다. 또 (가칭)목포신항민간개발공사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신

청한 목포신항의 다목적부두 건설공사는 이달 중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으며 인천북항민자사업은 상반기안으로 사업규모 및 시기등 구체적인 협의를 완료,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재정지원 과다

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달초 고시예정인 포항신항 1단계 건설사업은 민자 2,300억원을 투입, 4개 선석 규모의 컨테이너부두를 오는 2005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상반기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계획승인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0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1년도 일본 수산기반정비사업 예산

최근 일본의 2001년도 수산기반정비사업 예산안이 전년비 98.4%인 2,277억엔으로 내정됐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수산기반정비사업 예산안은 통상분 2,138억엔, 일본 신생특별범위 69억엔, 생활관련 공공사업 중점화범위 69억엔 등 2,277억엔으로 편성됐다.

일본 수산청은 종래 2개의 수산공공사업인 어항어촌정비사업과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을 수산기반(어항·어장·어촌)정비사업으로 통합시켰으며,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산물 공급체제의 정비 △수산자원 서식환경의 보전·창조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 등 알기 쉬운 사업체제로 재편했다.

이와함께 어항과 어장을 종합적·일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과 앞바다 인공해저 산맥의 조성 및 자원보호초의 정비 그리고 환경·위생관리형 어항만들기 추진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신설했다.

또 통합보조금을 확충, 이와 관련한 어항어장 기능고도화 통합보조사업을 시정촌이 수행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산기반 정비사업의 추진은 신규 착공 100개 어항을 비롯하여 신세기의 어항·어장·어촌만들기와 수산공급기반의 긴급거점정비 및 조장·간석의 조성, 생활환경정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수산기반의 정비

본격적인 200해리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일본 주변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어업지역의 활성화 등 앞으로의 수산정책 과제에

맞게 대응한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수산기반 정비를 위하여 사업의 재편·중점화 등에 의한 신세기의 어항·어장·어촌만들기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은 어항·연안정비 등 시설에 착안한 사업체계를 재평가하고 자원의 증식에서 생산, 유통까지 일관한 획리적인 사업전개가 가능하고 또한 시책목적의 명확한 사업체계가 되도록 어항어촌정비사업과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을 수산기반정비사업으로 재편·통합함으로써 수산기반정비의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산기반정비의 신규·중점시책은 200해리 수역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산물 공급체제의 정비를 위해 △자원관리형·기르는어업, 품질·위생관리

에 대응한 수산기반의 긴급거점정비로의 중점투자(318억엔, 대전년도비 14.1%증) △ 앞바다에 최신기술의 응용에 의하여 인공해저산맥의 조성 등 광역에 걸치는 자원증대 효과를 지니는 대규모 어장을 정비하는 근해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어장정비대책의 실시 △HACCP방식 등에 대응한 시장의 용지정비, 어항시설의 고질화 등을 추진하는 환경·위생관리형 어항만들기 추진사업 실시 △일정기간 어획의 제한을 통하여 자원보호에 이바지하는 시설(보호초) 정비를 실시 △기존 어항·어장시설의 기능 고도화나 보다 이용하기 쉬운 시설 정비를 통합 보조금화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지금까지 어항·어장의 각각 사업평가에 관한 조사를 통합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산기반정비사업평가조사를 실시 △어촌의 효과를 앞당기기 위한 소재로서 간벌재의 활용을 검토하는 어촌에 있어서의 간벌재

항만보안 울타리 우수응모작 선정

해양수산부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 항만보안울타리 아이디어 공모에서 '환경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알루미늄 울타리'를 낸 이수정·김정현씨가 미래로상(상금 200만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세계로상(상금 100만원)은 채승우씨의 '바다로의 향해'가, 바다로상(상금 50만원)은 김선영씨의 '바다의 유희'가 각각 차지했으며 장려

상(상금 25만원)은 최석환·정동훈씨의 'OCEAN KOREA'와 전종렬씨의 '희망의 바다'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입상된 항만보안울타리 아이디어를 도시민의 접근이 잦은 지역의 노후울타리 보수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기존의 울타리도 단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활용조사를 실시한다.

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이 되는 어장의 적극적인 보전·창조를 위해 △수산자원의 증대, 해양환경·생태계의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장·간석의 조성 등에 중점투자(160억엔, 대전년도비 4.1%증) △해안, 항만, 어항, 하천 등의 각 사업자간의 연계에 의하여 광역적인 해안침식대책을 실시한다.

어업지역의 활성화

도시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진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긴급히 추진,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도시와 어촌과의 교류 추진을 통

한 지역으로서 수익기회 증대에 이바지하는 기반시설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촌진흥에 이바지 할 사업의 각 분야에 있어서 사업내용이나 요건의 개정 등 제도의 충실을 꾀하고 각종 시책을 종합적이고도 중점적으로 강구함으로써 긴급히 어촌의 생활기반시설의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 지도의 확충 △과소지역에서의 어업집락 배수시설정비를 도도부현 공사제도로 신설 △어업집락 환경정비사업 등에 중점투자 △어항어촌활성화 대책사업의 제도 확충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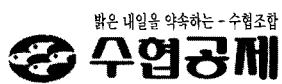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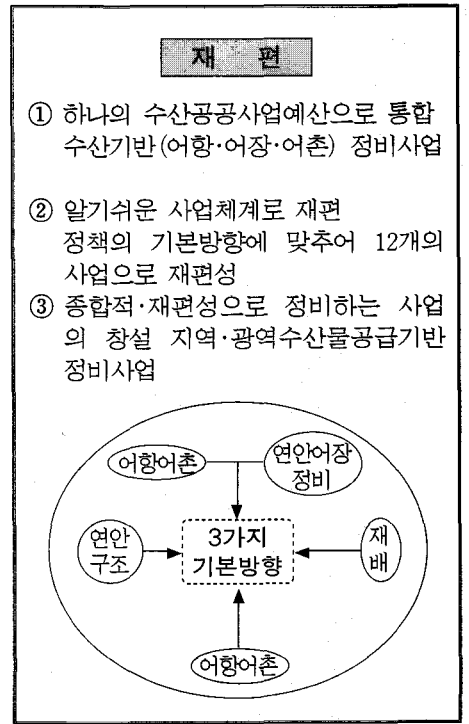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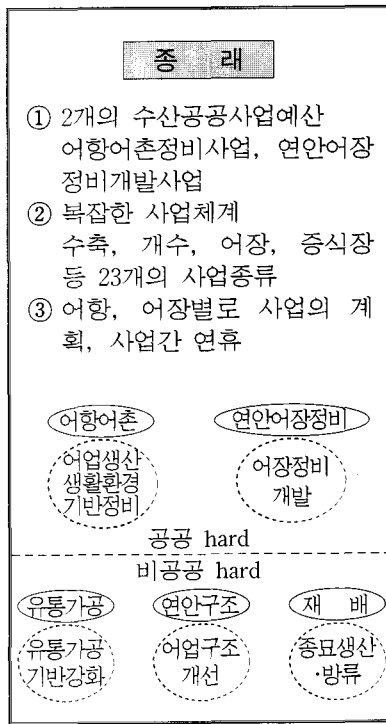
2001년도 수산기반 정비사업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엔)

사 항	2000 당초 예산	2001 개산결정액							전년비
		통상분	중점화 범위·특별 범위					합 계	
			그중지역 전라분	생활중점화 범위	일본신생특별범위	공공유보범 위	계		
수산기반정비	231,470	213,773	3,994	6,929	5,250	1,699	13,878	227,651	0.984
수산물공급기반정비	189,959	177,942	1,976	4,831	4,752	1,192	10,775	188,717	0.993
수산지원환경정비	2,515	1,975	87	0	93	382	475	2,450	0.974
어촌종합정비	26,516	21,852	1,931	2,098	405	125	2,628	24,480	0.923
어항관련도정비	2,654	2,382	0	0	0	0	0	2,382	0.898
조사비·보조율차액	9,826	9,622	0	0	0	0	0	9,622	0.979

배분중점화·특별범위의 개요(수산기반정비사업) (단위 : 백만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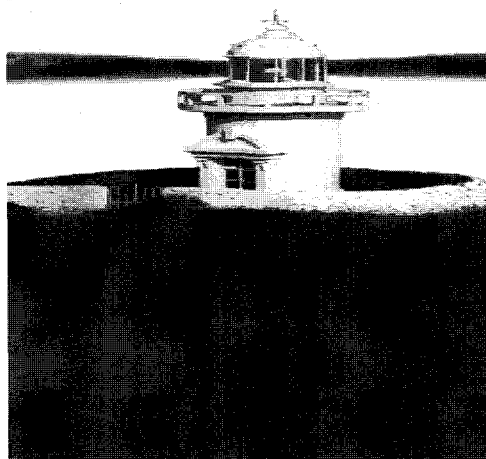
구 분	배분액	사 업 내 용
계	13,878	
1. 생활관련등 공공사업중점화 범위	6,929	
(1) 정비수준이 뒤떨어진 농산어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	2,000	어촌의 생활환경정비대책
(2)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방재·국토보전대책	1,960	재해에 강한 어촌만들기 대책
(3) 국민생활에 불가한 식료의 자급을 향상을 위한 기반정비	2,969	풍요로운 식생활을 지탱하는 안전하고 안정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기반만들기
2. 일본 신생 특별범위	6,949	
(1) 국민생활상 긴급히 맞출여할 긴급대책	1,197	환경·순환형 사회의 구축에 이바지하는 조장·간조장 「바다의 숲만들기」의 추진 타 성청과의 연휴에 의한 「풍요로운 연안역의 창출」
(2) 고품격 사회에 대응한 거리만들기·시설정비	3,506	고령자 등이 생기 넘치게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만들기」, 도시주민의 휴식장이 되는 「교류도시형 어항만들기」
(3) 도시의 안전성·편이성·경쟁력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반정비	547	

수산공공사업의 재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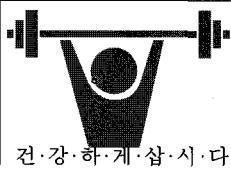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수협의 안전지대를 들어오십시오. 가장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비만

식이·운동·행동요법 병행해야 식초 식물성식품 예방에 좋아

최근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비만도 질병이란 인식이 높아져 각별히 주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람이 비만해지면 우선 체형에 변화가 오고 몸이 뚱뚱해져 보기가 흉하게 되는 반면에 민첩성 등 활동력이 떨어져 게을러진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외모도 문제지만 이같은 비만중에 의해 각종 성인병 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하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어린 아이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데 성인병에 있어서는 고혈압 당뇨병 담석증 등의 증세가 올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신체기능상의 장애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만이라하면 표준체중보다 20%이상 넘을 때를 말한다. 여기서 표준체중이란 키(cm)에서 100을 뺀 값에 0.9를 곱한 값이다.

비만의 원인을 의학계에서는 내분비호르몬 이상이나 대사장애 등 내인성 요인과 음식물 섭취와 체내활동도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외인성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어린이 비만 치료는 무조건 체중감소를 시키기 보다는 정상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도록 하는 원칙이래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여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하는 바람직한 식습관을 심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른의 경우 체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되었을 경우 먼저 손쉽게 떠올리는 방법은 식사량을 줄이는 식이요법이다. 또 운동을 해서 체중

을 빼는 운동요법과 길게는 일상의 생활태도를 고쳐서 장기적으로 서서히 체중을 줄이는 행동요법 등이 있다. 대개는 이 세가지를 모두 병행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효과를 본다.

실제 살이 찐 사람들을 살펴보면 많이 먹어서 보다는 적게 움직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밥을 굶거나 양을 줄임으로써 체중을 줄인다 보면 체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근육이 감소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적당한 운동을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중조절을 운동요법에는 몇가지 유의해야 할 원칙이 있다. 비교적 가벼운 운동으로 걷기 천천히 달리기 수영 자전거 등산 등을 꾸준히 해야 하며 하루 15분에서 30분쯤 지속적으로 하되 과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민간요법으로는 식초류의 사과초나 와인(양주)초 또는 영양가가 없는 합성초 등이 비만 예방의 민간약 구실을 하고 있는데 이들 식초안에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고 당질에서의 지방합성을 방지하는 작용이 있어 비만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비만 예방에는 과(양파)와 콩이 좋다. 파는 몸에 붙은 군살의 지방분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고, 콩은 칼로리 흡수를 저지하여 비만 예방작용을 한다. 특히 콩에는 당분이 극히 조급밖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콩밥이나 순두부찌개 등을 매번 식사때마다 먹으면 비만증이 치유되기도 한다. 이밖에 녹차 울무차를 자주마시거나 현미와 잡곡밥을 활용해도 좋다.

(3) 중기운반공(반입)
중기운반공은 육상시공에 사용하는 작업기계의 반입조립작업이다. 크롤러식 샌드파일 타설기, 콤프레서, 도저셔블 등을 반입한다.

운반은 트레일러나 트럭으로 하고 하역조립은 트럭크레인을 사용한다.

(4) 부설사공
샌드드레인말뚝을 타설하기 전에 부설사(sand mat)를 시공한다. 이 부설사는 드레인으로 집수되어 상승해 온 간극수의 배수로이다.

육상공사의 부설사공은 불도저로 살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해상공사의 경우는 4.2 부설사공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불도저의 접지압은 중·대형에서 0.8kgf/cm² 정도, 습지 불도저에서 0.2~0.4kgf/cm² 정도이므로, 표층토의 접지압에 따라 선택한다.

부설사(sand mat)의 두께는 연약지반 표층토의 상태가 나뉘수록 두껍게 할 필요가 있으나 50cm~100cm가 많다.

(5) 재료운반
샌드드레인말뚝에 사용하는 사재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스톡야드(stock yard)에 집적한다.

모래의 검수는 용적검수가 많다.

(6) 위치 선정(모래말뚝 타설기)
크롤러식 샌드파일 타설기를 미리 명시해 둔 타설위치에 자동으로 반입한다.

(7) 계기확인
지중에 조성된 파일모래말뚝의 규격은 지표면에 노출된 부분와는 직접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파일 타설시에는 케이싱파이프 선단부의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51]

第4章 地盤改良工

높이, 케이싱파이프내 모래면의 높이, 모래 투입량 등을 계기로 확인하면서 시공하고, 이 계적을 기록지에 남기는 관리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이 방법으로 샌드파일의 편결성, 깊이와 모래의 양 등을 관리한다.

관리계기가 정상으로 작동하는 일은 시공전에 시험말뚝의 타설로 확인한다.

(8) 모래말뚝 타설
샌드드레인말뚝의 타설순서는 다음과 같다. 또한 타설순서와 사면 기록지를 그림 4.3.5에 나타낸다.

① 케이싱 선단의 슈(shoe)를 닫고, 소정의 모래말뚝 타설 위치로 이동한다.

② 바이브로의 진동에 의하여 케이싱을 소정의 깊이까지 박아 넣는다.

③ 버킷트(도저셔블) 등으로 케이싱내에 모래를 투입한다.

④ 모래 투입구를 밀폐하고, 압축공기를 보내면서 케이싱을 뽑아낸다.

⑤ 케이싱을 완전히 뽑아낸 뒤 샌드 파일의 타설은 완료하

고, 다음의 타설위치로 이동한다.

(9) 관측기기설치
지반지력과 원고골동에 대한 안전율은 모래말뚝 타설직후의 재하성토 시공전이 가장났다. 사전에 안전계산을 했더라도 토질조건은 대체로 불균일하므로 예측할 수 없는 지반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하성토는 얇게 층상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약지반이 일단 파괴되면, 드레인은 그 도중에서 절단되어 배수기능을 잃고 본 공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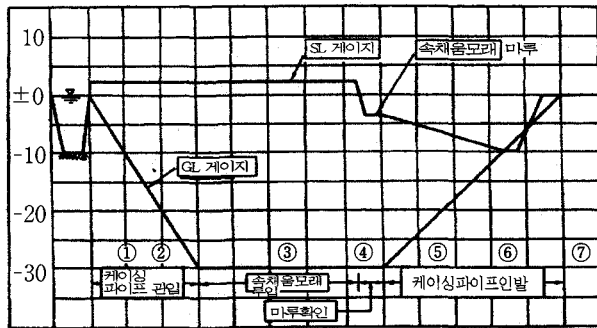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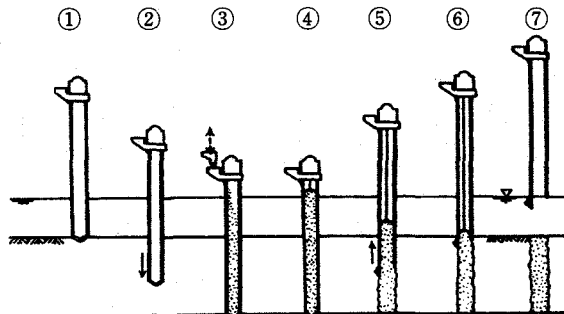


그림 4.3.5 샌드파일의 타설순서와 사면계이지 기록

예금부분보장제도

■ 2001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 파산시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1인당 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금융기관별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갑은행과 을은행에 예금가입시 각 은행별로 5천만원씩 보호된다. 단, 동일 금융기관의 본 지점 거래시에는 합산하여 적용된다.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한 예금보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은 영업을 계속하게 되므로 예금자의 예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 국민 여러분의 예금은 대부분 안전하게 보호

•1인별, 금융기관별로 한도가 설정되므로 대부분의 서민 예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기업영업활동을 위한 결제성 예금중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예금(별단예금, 당좌예금)은 2003년말까지 전액 보호된다.

■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시 15%~40% 누진과세

납부 하는 은행 등 6개 금융기관 구체적으로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공과와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투신사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므로 예금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는 농·수협중앙회 및 44개(2000.9 기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예금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호된다.

•다만, 농·수협의 단위조합은 농·수협법에 의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각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예금에 한함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을 보호한다.

-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여 고객의 금전을 예치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뒤 그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 상당)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은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다.

-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원금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

•예금부분보장제는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외형확대를 추구하던 금융기관의 경영행태를 바꿀 것이다.

•반복적인 공적자금 투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

•예금부분보장제는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외형확대를 추구하던 금융기관의 경영행태를 바꿀 것이다.

•반복적인 공적자금 투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종합과세 종합과세

■ 2001.1.1부터 소득종류간·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40%의 누진세율로 과세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20%→15%로 인하

■ 종합과세 완충장치

•5년이상 장기저축·채권 : 30%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허용

•비과세저축 :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 2001.1.1부터 소득종류간·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40%의 누진세율로 과세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20%→15%로 인하

■ 종합과세 완충장치

•5년이상 장기저축·채권 : 30%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허용

•비과세저축 :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 2000. 12. 15부터 2001년 말까지 근로자 주식저축 비과세 상품이 판매된다.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증권사 점포 및 은행창구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 증명서 지참)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액의 30%이상(평잔기준) 주식을 매입해야 하고 투신사, Mutual Fund, 은행(신탁)에서 판매하는 주식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 일시납 또는 분할납도 가능하다.

생활정보

생활정보

〈금융기관별 보호되는 상품내역〉

구분	보호되는 상품	보호되지 않는 상품
은행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신탁(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96.4.30이전에 입급한 가계연금신탁 및 기업연금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직립신탁(목적신탁 등) 단, 결제성 예금중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예금(별단·당좌예금)은 2003년까지 전액 보호된다.	·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농·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및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 신탁상품
보험회사	·개인의 보험계약, 법인의 보험계약중 퇴직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증권회사	·위탁자예수금·선물옵션거래예수금·수익자예수금·자기신용대주담보금·신용거래계좌개설담보금·신용공여담보금등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위하여 고객이 예탁한 현금잔액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증권사발행채권,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제세금예수금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98.9.30이전에 발행한 담보부채매출어음, 어음관리계좌(CMA)	·98.9.30이전에 발행한 담보부채매출어음을 제외한 매출어음, 수익증권, 증권사발행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상호신용공과신용협동조합	·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	
	·출자금, 예탁금, 적금	·공제상품